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라.  
 나는 너희 들을 모두 깊이 사랑한다.  
 나는 개인 날에 슬픈 얼굴을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천둥 속에서 즐거운 웃음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한다.  
 나는 개인 날이나 궂은 날이나 모두 다 사랑한다.

Welcome joy, and welcome sorrow,  
 Lethe's weed, and Hermes' feather,  
 Come today, and come tomorrow,  
 I do love you both together!  
 I love to mark sad faces in fair weather,  
 And hear a merry laugh amid the thunder;  
 Fair and foul I love together...<sup>4)</sup>

이와 같은 키이즈의 태도는 그의 시에서 모순어법으로 나타난다. 그는 이같은 모순어법을 그의 시에서 많이 쓰는데, “빛나는 별” Bright Star이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내 고운 님의 부르 익어가는 젓가슴을 베개 삼아  
 영원히 그 부드러운 오르내림을 느끼면서,  
 영원히 달콤한 설레임 속에 깨어있었으면……

Pillowed upon my fair love's ripening breast,  
 To feel forever its soft fall and swell,  
 Awake forever in a sweet unrest...

위의 인용에서 본 “sweet unrest”는 이와 같은 모순어법(oxymoron)의 좋은 예이다.

키이즈는 그의 시에서 공감각(共感覺, synaesthesia)을 많이 쓴다. 공감각이란 한 가지 감각을 묘사함으로써 다른 감각까지도 유발시키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소리에 색채나 무게가 주어진다든가(무거운 종소리 등), 색채에 냄새가 주어진다든지, 또는 냄새에 소리가 주어지는 등의 경우이다. 이 경우 서로 다른 감각기관이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돼 있으며, 한 가지의 감각작용은 전체의 감각작용을 불러 일으켜서, 서로 다른 감각이 동시에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키이즈의 공감각을 쓴 대표적인 것으로 그의 “나일팅게 일에게 부치는 노래” Ode to Nightingale를 예로 든다.

아 오랜 세월 깊이 패인 땅 속에서 냉각되어  
 꽃의 여신 플로라와 시골 초원, 춤,  
 프로방스(기사도와 서정시로 유명한 프랑스의 지방이름)의 노래와 햇볕에 탄 환희가  
 맛도는 포도주를 한 잔 마셨으면!

O, for a draught of vintage! that hath been

4) Jack Stillinger, ed., *The Poems of John Keat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78), p. 231.

Cooled a long age in the deep-delved earth,  
Tasting of Flora and the country green,  
Dance, and Provençal song, and sunburnt mirth!

위에 인용한 시의 경우에는 시인은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고 싶어한다. 그런데 포도주를 <맛본다>는 감각 속에는 땅 속의 시원한 느낌과, 꽃의 여신 플로라에 대한 느낌, 그리고 시골 초원의 느낌이 함께 묻어 나온다. 즉, 시원하다는 촉각과, 시골 초원을 보는 시각, 그리고 꽃의 여신에게서 느껴지는 냄새 및 시각이 다 함께 불러 일으켜진다. 그뿐이 아니라, 춤에서 느껴지는 행동의 이미지, 노래에서 느껴지는 청각의 이미지, 그리고 햇볕에 탔을 경우 느껴지는 뜨거움과 눈부신 햇볕이 가져다 주는 시각의 이미지 등, 포도주 한 모금이 불러 일으키는 이미지는 미각의 이미지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많은 다른 감각까지도 함께 불러 일으킨다. 이는 서로 다른 감각의 공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런 감각들의 통합성을 의미한다. 즉, 어느 하나의 감각(예를 들면 미각)은 그 하나만의 감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감각과도 총체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는 곧 모든 감각기관은 단지 서로 서로 독립해서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유기체의 특징이며, 이는 상상력의 유기체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상상력이 갖고 있는 서로 상충되는 요소들을 통합하는 기능은 시에 나타나는 역설(paradox)에서도 잘 나타난다. 역설은 겉으로는 서로 모순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잘 뜯어보면 사리에 합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진술을 말한다. 클린스 부룩스 Cleanth Brooks는 그의 『잘 빚어진 항아리』 *The Well Wrought Urn*의 맨 처음을 “시의 언어는 역설의 언어다” the language of poetry is the language of paradox<sup>5)</sup>라고 시작한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러한 역설이 시에서 쓰이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워즈워쓰의 시에는 역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클린스 부룩스는 워즈워쓰의 “It is a Beauteous Evening”에 나타난 역설(paradox)을 보여준다.<sup>6)</sup>

그것은 아름답고, 고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다.  
이 성스러운 시간은 수녀가 숨을 죽이고 기도하는 때처럼  
고요했다.

It is a beauteous evening, calm and free,  
The holy time is quiet as a Nun  
Breathless with adoration.

시인은 지금 고요하고 상쾌한 저녁나절에 어느 소녀 (여기 나오는 소녀는 워즈워쓰와 그

5) Cleanth Brooks, *The Well Wrought Ur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5) p. 3.

6) Brooks, pp. 3-5.

의 불란서 애인인 아네트 발롱 사이에 낳은 캐롤라인이다. 그리고 장소는 불란서 해안에 있는 칼레 Calais이다)와 같이 해변을 거닐고 있다.<sup>7)</sup> 황혼은 마치 수녀가 기도할 때 불러 일으키는 장엄하고 고요한 느낌을 불러 일으켜서 위즈위쓰는 황홀하고 경건한 느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기 옆에서 같이 걷고 있는 소녀는 이 모든 고요한 장엄 속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린 소녀는 장엄하고 숭고한 자연의 경건함을 느끼지도 못 한단 말인가?

만약 네가 숭엄한 생각으로 감동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때문에 너의 본성이 덜 신성하다고는 할 수 없다.  
너는 일년 내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안겨 있고,  
신전의 가장 신선한 곳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느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If thou appear untouched by solemn thought,  
Thy nature is not therefore less divine:  
Thou liest in Abraham's bosom all the year,  
And worship'st at the Temple's inner shrine,  
God being with thee when we know it not.

여기에 바로 이 시의 역설이 있다. 소녀와 같이 걷고 있는 시인은 저녁의 고요하고 숭엄함에 깊이 감동되어 경건한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저녁시간은 마치 수녀가 경건하게 기도할 때처럼 고요하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breathless) 숭엄의 극에 달해 있다. 그런데, 소녀는 이 모든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랑곳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 수녀와 시인은 숭엄함을 느끼고, 소녀는 무관심과 무감동의 표본처럼 보인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이 시의 역설이 있다. 시인은 단지 이러한 경우에만 경건함을 느낀다. 즉, 그는 보통때는 경건과 감동하고는 별 볼일이 없다. 그러면 수녀는 어떤가? 그녀는 경건한 인물이 아닌가? 수녀는 남에게는 경건하게 보인다. 그녀의 수녀복 하며, 거동하며, 그녀의 외관으로 볼 때는 그녀는 숭엄하고 신앙심이 깊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바리새의 경건함일 수도 있다(물론 모든 수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어느때나 어느 곳에서나 경건이 자신 속에 있으므로 수녀나 시인처럼 지어서 외관으로 숭엄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특정한 때에만 숭엄을 느끼지는 않는다. 이 소녀는 숭고와 경건함 바로 그 자체이며, 자연의 모든 것과 느끼지 않는 사이에 마음의 교통을 갖고 있다. 이점이 바로 이 시에 나타난 역설이다. 이러한 역설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또한 이 둘을 서로 수용·융합시킬 수 있는 상상력의 작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7) N.A.II. p.327에 나오는 Dorothy Wordsworth의 *The Grasmere Journals*을 볼것.

## 2. 낭만시인의 자질

그러면 시인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며, 또 어떠한가?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곧 시인이라는 답을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다. 시인(특히 낭만시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력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서, 이를 자신의 시작(詩作)의 근본원리로 삼아 시를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은 어떤 경우에는(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끊임없는 성찰과 수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상상력의 정의와 실행은 일생의 사업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 마디로 상상력이라고 하지만, 상상력의 정의는 각 시인이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를 수가 있다. 다음에서 우리는 낭만시인들이 정의한 한 시인의 정의를 보기로 한다.

### 1) Coleridge의 시인관

우선 낭만시의 이론가인 코올리지가 정의한 시인관을 보기로 하자. 그는 시인이란 인간의 통합기능인 영혼을 전율시켜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적으로 완전하게 말한다면 시인이란 인간의 전 영혼을 움직이게 한다……그는 통합의 음조와 또한 통합의 정신을 발산하며, 우리가 특히 이 경우에만 쓰는 상상력이란 이름으로 부르는 합성하는 힘이 있고 신비스런 능력에 의하여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서로 합성하고 혼합한다……이러한(상상력의) 능력은 반대되거나 또는 서로 다른 특질을 조화시키거나 화해함으로써 드러난다.

The poet, described in *ideal* perfection, brings the whole soul of man into activity.... He diffuses a tone and spirit of unity that blends and (as it were) *fuses*, each into each, by that synthetic and magical power to which we have exclusively appropriated the name of imagination. This power... reveals itself in the balance or reconciliation of opposite or discordant qualities. (*Biographia Literaria*, Ch. XIV) (N.A. II, 401-402).

이처럼 코올리지는 상상력의 주요한 특질을 서로 합성하고 혼합하는 힘으로 보았고, 이를 또한 “신비스런 능력” magical power이라고 보았다. 상상력을 말할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거니와, 이와같은 상상력의 특질은 신의 능력에 가까운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코올리지의 생각을 우리는 “쿠블라 칸” *Kubla Khan*에서 가장 잘 읽을 수 있다. 그는 이 시를 이렇게 시작한다.

쿠블라 칸은 자나두에  
웅대한 환락궁을 지으라고 명했다.

In Xanadu did Kubla Khan  
A Stately pleasure dome decree.

그러자 환락궁은 지어졌다. 이는 실로 신의 능력에 의한 창조를 연상시킨다. 이 시에서는 이 환락궁이 지어진 경위는 서술이 없고, 이러한 쿠블라 칸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치 창세

기에 여호아가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자 빛이 생겨나듯이, 환락궁이 지어진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쿠블라 칸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갖고 있는 시인으로 바뀌놓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환락궁은 실로 기적적인 구조물이다.

그것은 절묘한 기적이었다.  
얼음의 동굴이 있는 양지 바른 환락궁!

It was a miracle of rare device,  
A sunny pleasure dome with caves of ice!

이 환락궁은 서로 상반되는 특질을 혼합하여 가진 기이한 구조물이다. 궁형의 지붕은 햇빛을 가득 받고 있는 반면 동굴은 얼음으로 덮여 있다니! 이처럼 이 환락궁은 절대 권력자(이 경우에는 신의 능력을 가진 시인이라고 해도 좋다)의 명령에 의하여 창조된 환상적인 구조물이다. 그리고 이 구조물은 서로 상반되는 특질들을 조화하여 축조된 것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이 시의 둘째 구절에서 코울리지는 이러한 절대권력자의 성질을 닮은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덜시머를 든 아가씨를  
환상 속에서 나는 한 번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아비씨니아의 처녀  
덜시머를 키면서  
그녀는 아보라산을 노래했다.  
내가 내 마음 속에 그녀의 연주와  
노래를 되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나도 깊은 환희를 느껴  
웅장하고 긴 노래로  
꿈중에 그러한 궁전을 지을 수 있으면  
저 햇빛이 잘 드는 궁전! 그리고 저 얼음의 동굴을!  
그리고 음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궁전과 동굴)을 거기서 보리라.  
그리고 모두를 외치리라. 주의하시오! 주의하시오!  
그의 번쩍이는 눈을, 그리고 그의 나부끼는 버리칼을

A damsel with a dulcimer  
In a vision once I saw:  
It was an Abyssinian maid,  
And on her dulcimer she played,  
Singing of Mount Abora.  
Could I revive within me  
Her symphony and song,  
To such a deep delight 'twould win me,

That with music loud and long,  
 I would build that dome in air,  
 That sunny dome! those caves of ice!  
 And all who heard should see them there,  
 And all should cry, Beware! Beware!  
 His flashing eyes, his floating hair!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먼저 아비씨니아의 처녀가 덜시머에 연주하는 음악이다. 아비씨니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에 있는 지방이다. 아비씨니아와 아보라 산은 우리에게 이국적이며 신비스러운 느낌을 갖게 한다. 시인은 이러한 처녀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음악은 우리의 관념과 현실의 조화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화의 산물이다. 이러한 조화의 산물을 시인은 환상(또는 창조적인 상상) 속에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시인이 이렇게 상상 속에서만 본 조화의 산물을 실제 생활에서 다시 불러 일으킬 수만 있다면, 이는 곧 위대한 시를 쓰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독자는 이러한 시인이 창조한 시를 마치 환락궁을 보듯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인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번쩍이는 눈을 갖고 있고, 또 그의 머리칼은 바람에 나부낀다. 이는 곧 시인이란 신의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코울리지는 초자연적인 또는 무의식의 세계에 시인의 능력의 근본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코울리지는 “쿠블라 칸”의 서문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시가 씌여졌는지에 대해 적고 있다. 그는 몸이 불편하여 진정제를 복용했다. 그 당시 그는 『퍼처스의 순례기』 *Purchas's Pilgrimage* 라는 책을 읽고 있었고, 바로 쿠블라 칸이 환락궁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구절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이렇게 잠이 들어 세 시간 가량 잠을 잤다. 잠이 깨고 난 후 바로 그는 200 내지 300줄이나 되는 시를 쓸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이 때 마침 누가 찾아왔기 때문에 3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자기 방에 와서 시를 쓰려고 보니, 지금까지 자기의 머리 속에 있던 시상이 다 없어져 버렸다. 현재 남아 있는 “쿠블라 칸”은 남은 기억을 더듬어 쓴 단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금은 장황하게 이 시를 쓴 경위를 코울리지의 말을 따라 인용했지만, 이 경위는 사실일 수도 있고, 또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코울리지가 말한 시작의 과정이다. 이 시는 바로 시인의 무의식 속에서 배태되어 생성된 산물이다. 그러므로 신 고전주의에서와는 달리 낭만주의에서는 시의 연원을 무의식 및 꿈에 두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는 무의식의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낭만시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 2) Wordsworth의 시인관

코울리지가 초자연적인 세계 및 무의식의 세계에 그의 시의 중점을 둔 반면, 워즈워스는 일상적인 사물에 그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워즈워스는 그저 일상적인 사물을 묘사하는 것이 그의 시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의 시의 목적은 “보통 우리가 보는 사물에 신기한 메

력을 불러 일으키는 것” to give the charm of novelty to things of every day (*Biographia Literaria*, Ch. XIV)이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의 관습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인식을 일깨워서, 우리 앞에 존재하는 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 by awakening the mind’s attention from the lethargy of custom and directing it to the loveliness and the wonders of the world before us, (*Biographia Literaria*, Ch. XIV)이었다. 그러므로, 코울리지는 초자연적인 데에 중점을 두고, 거기서 인간적인 관심을 끌어냈다면, 워즈워쓰는 우리가 타성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일상의 신비를 초자연의 영역으로까지 끌어 올린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워즈워쓰는 일상 속에 나타나 있는 범상(凡常)에 머무르지 않고, 범상속에 깃든 비상(非常)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의 시에는 그러므로 “보는 것”(vision)에 대한 중요성과 “눈”의 이미저리가 도처에 있다.

이러한 열린 눈을 가진 시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그래서 우리와는 별개의 다른 종류의 사람인가? 워즈워쓰는 시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하나의 인간이다. 사실을 말한다면, 그는 보통 사람이 갖은 것보다 좀더 많은 생동하는 감수성을 타고 난 사람이며, 좀 더 생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고, 인간성을 더 잘 아는 사람이며, 좀 더 포용성이 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의욕에 기뻐하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영혼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기쁨을 느낀다.

He is a man speaking to men: a man, it is true, endowed with more lively sensibility, more enthusiasm and tenderness, who has a greater knowledge of human nature, and a more comprehensive soul, than are supposed to be common among mankind; a man pleased with his own passions and volitions, and who rejoices more than other men in the spirit of life that is in him. (N.A. II. p.168)

이처럼 시인이 보통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자질, 즉 창조적인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상력을 가진 시인은 또한 인간과 우주는 서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고, 신비스러운 생명력에 의하여 서로 연결돼 있음을 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고양된 생각의 기쁨으로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한 存在를

그리고 한층 더 깊이 침투되어 있는 어떤 존재의 숭고한 느낌을.

(그 존재의 거처는 저무는 석양의 빛이며,

둥근 바다와 살아 있는 공기,

그리고 푸른 하늘이며,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모든 생각하는 것들을, 모든 생각의 대상들을

추진시키고, 만물 속을 구르는

운동과 정신을.

And I have felt

A presence that disturbs me with the joy  
 Of elevated thoughts; a sense sublime  
 Of something far more deeply interfused,  
 Whose dwelling is the light of setting suns,  
 And the round ocean and the living air,  
 And the blue sky, and in the mind of man:  
 A motion and a spirit, that impels  
 All thinking things, all objects of all thought,  
 And rolls through all things.

(“Tintern Abbey”)

### 3) Blake의 우주적 상상력

블레이크는 여러 의미에서 기이한 사람이었다. 그는 화가이며, 또한 시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에 자신의 삽화를 곁들여 책으로 만들곤 하였다.

그의 기이성은 어렸을 때부터 나타났다. 그는 어렸을 적에 기이한 경험을 했다. 그가 네 살 때에, 하느님께서 창문을 통해 그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좀더 커서 그가 여덟 살인가 열 살이 됐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천사들이 나무를 온통 덮고 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나뭇가지는 천사들의 찬란한 날개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그의 아버지에게 알렸더니,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고지식하여 그가 거짓말을 한다며 때리려 들었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것을 볼 수 있는 Blake의 능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으며, 그래서 그의 시도 오랫동안 미친 사람의 시라고 여겨져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의 시가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의 생애에 대한 사실을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그의 사상과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이러한 기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가 천재이지 미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가 어른이 되어서도 영적인 세계와의 교통은 계속되었다. 1787년에는 그의 동생 로버트 Robert가 죽었다. 그는 로버트와 아주 가까워서, 그의 죽음은 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체 옆에서 두 주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꼬박 지냈다. 그러자 그는 로버트의 영혼이 환희속에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이 경험은 그에게는 아주 중대한 경험으로서, 이 경험을 한 이후로는 “영원으로 통하는 문들”(the gates to Eternity)은 그에게는 항상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원으로 통하는 문들”이란, “상상력으로 통하는 문”이라고 바꿔봐도 큰 의미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매개체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곧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구원이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Blake가 생각한 구원이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님을 우선 먼저 밝혀둬야 하겠다. 그가 말하는 구원이란 상상력에 의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편협성을 넓혀주고, 인



식의 막힌 곳을 뚫는 것을 말한다. 블레이크는 물론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대개의 독창적인 사상가나 예술가가 그렇듯이, 그도 편협하고 경직된 기독교 교리에 의한 구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성경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창작물로 여겨, 이를 아무런 방해없이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읽었다. 그에게는 교회라는 인위적인 제도는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창조성을 구속하는 방해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그는 상상력에 의하여 창조된 자신의 예술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밝히고자 했다. 그는 『예루살렘』 *Jerusalem*이라는 긴 시에서, “나는 나대로의 하나의 [신화] 체계를 창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든 체계의 노예가 될 것이다”(I must Create a System, or be enslav'd by another Man's, 1. 20.)라고 말한다. 이처럼 Blake는 극단적이라고 할 정도로 굳어진 인습과 편협한 제도에 저항했다. 그의 시는 그러므로 그가 창조적으로 구상한 구원의 신화체계이다. 이러한 신화체계를 그의 시에 대응으로써 그는 “나의 작품[작업]은……고대 사람들이 소위 황금시대라고 부른 시대를 재현하는 작업이다”(my Work...is an Endeavour to Restore what the Ancients call'd the Golden Age, *A Vision of the Last Judgement*)라고 말한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Blake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했다고 생각했는가? 그는 『유리존의 책』 *The Book of Urizen*에서 인간 타락의 신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Blake는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며, 우주를 꽉 채운 의식 자체였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인간은 그러므로 창조주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우주를 꽉 채우는 존재로서 있었다. 이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되돌아 갈 자리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인간을 블레이크는 *The Universal Man*(우주적인 인간, 또는 보편적인 인간), *The Universal Brotherhood of Man*, *The Human Form Divine*, 또는 *Albion*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 그러나 이 모든 이름이 지칭하는 것은 모두 다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이 상태의 인간은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모두가 조화롭게 통합된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생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인간 각 개인과 사회 전체가 하나이며 따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신과 인간과 우주는 모두 하나였다. 이 얼마나 멋진 세계관인가!

이러한 상태의 조화롭고 유기적인 인간(또는 인류 공동체)이 조화를 잃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위 분별심(reason)이 생겨나면서 부터이다. 유리존이라는 실체가 우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도 바로 이 분별심에 의해서 이다. 유리존이라는 말의 어원은 “Your Reason”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일수도 있고, 또는 영어로 “horizon”(지평선)을 나타내는 희랍어인 “hourizein”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hourizein”이라는 말은 “경계를 짓다, 한계를 짓다”(to limit)는 의미를 가진다.<sup>8)</sup> 어쨌든, 분별심이 생기고 나서부터 분열이 시작

8) S. Foster Damon, *A Blake Dictionary* (Boulder, Colorado: Shambhala, 1979), p.419.

된 것이다. 동은 서로부터 갈려 나가고, 남자는 여자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감정은 이성으로부터, 육체는 영혼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제 각기 따로 따로 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열에 의하여 생긴 것이 바로 Four Zoas라는 존재들이다. 이 말은 순전히 블레이크 자신이 창작한 이름이다. Zoas는 Zoa의 복수형으로 쓴 것이지만 Zoa 자체가 회랍어에서는 이미 Zoon의 복수형이다. Zoa는 동물 또는 생물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어원은 Zoology에도 남아있다.

이렇게 분열되고 한정된 인간의 상상력은 모든 것을 편협하게 보고, 또한 일방적으로 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과학의 발전에서도 그 결점이 드러난다. 경험주의 철학의 중요한 가정은 인간은 인간의 오관에 의하여 감지되는 객체 이상은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에는 인간을 감각의 노예로 만들고 마는 결과를 가져온다. Blake는 인간의 이러한 분별심이 가져오는 폐해를 "ratio"라는 말로 나타낸다. 이러한 ratio의 폐해를 막아 주는 것이 곧 imagination이다. 인간이 상상력을 가질 때에는 이러한 감각의 감옥으로부터 풀려 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알고 있던 모든 것의 총체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옛날 그대로의 것이 아니다"(Reason, or the ratio of all we have already known, is not the same that it shall be when we know more, "There Is No Natural Religion," b).

이러한 타락된 세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반목과 투쟁이 심화된다. 이는 곧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문명의 병폐이며, 상상력의 결핍이 이의 원인이다. 이는 더구나 분열되기 전에 인간이 가졌던 혜안(vision)의 쇠퇴를 수반한다. 블레이크는 인간이 사물을 보는 눈을 4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가장 높은 경지의 눈은 에덴 Eden이라 부르며, 이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물을 보는 눈이다. 그 다음으로는 불라 Beula의 경지이다. 이 상태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상태들(contraries)이 서로 충돌함이 없이 역동적으로 조화를 이룬 것을 보는 상태이다. 타락의 상태에서는 다음 두 가지의 종류의 관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Generation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lro라는 것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서로 상반되는 특질들이 융화와 조화를 이루지 않고, 서로 충돌하고 격돌한다. 특히 이러한 상태는 Generation의 상태에서 두드러지며, Ulro의 상태는 우리가 갖는 시점의 최하위의 경우로서 이 상태에서는 아예 각기 다른 특질들은 각자의 형질을 고수하여, 활동이 정지되기에 이른다. 블레이크가 이처럼 인간의 인식능력을 4가지 단계를 나눈 것은, 인간의 구원은 바로 인식을 고양함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블레이크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보아 온 바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의 구원은 본래 가지고 있던 우주적인 의식(cosmic consciousness)을 상상력에 의하여 재생시키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지 못하고, 모든 인식의 문을 닫고 지냈다. 그 결과 인간은 동굴 속에 숨어 조그만 틈을 통하여 바깥 세

상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로였다. 블레이크는 “인간은 지금껏 자신을 완전히 차단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동굴에만 조그만 틈을 통하여 사물을 보게 된 것이다”(For man has closed himself up, till he sees all things thro' narrow chinks of his cavern,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은 자신의 본래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인간은 영혼과 육체는 따로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한다. ...만약에 인식의 통로가 깨끗해 진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제 본래의 모습대로, 즉, 무한한 능력이 있는 상태로 인간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first the notion that man has a body distinct from his soul is to be expunged...If the doors of perception were cleansed everything would appear to man as it is, infinite, *The Marriage*). 천국이란 바로 이처럼 서로 분리되고, 부조화를 이룬 인간의 인식기능을 통합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인간은 오랫동안 신은 바로 인간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구속과 제약 속에 살아 온 것이다(men forgot that all deities reside in the human breast, *The Marriage*).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적 상상력(또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되살려야만 할 것이다. 블레이크는 “시적인 능력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원리이고, 여타의 다른 것은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이다”(Poetic Genius was the first principle and all the others merely derivative, *The Marriage*)라고 말한다. 다음에서는 블레이크가 『천국과 지옥의 결혼』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에서 말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보기로 한다.

서로 상반되는 성질들이 없이는 진전이 없다. 이성과 정력, 사랑과 증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존재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Without Contraries is no progression. Reason and Energy, Love and Hate, are necessary to Human existence.

하나의 생각이 우주를 채운다.

One thought fills immensity.

신은 지금 존재하는 사물들이나 인간 속에서만 행동하고 존재한다.

God only Act & Is, in existing beings or Men.

예수는 덕이 있는 사람이고, 그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생의 충동에 의해서 행동했다.

Jesus was all virtue, and acted from impulse not from rules.

이와 비슷한 사상은 블레이크의 『최후의 심판의 예견』 *A Vision of the Last Judgment*에도 서도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사상들은 Blake의 어느 특정한 작품에만 나타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의 작품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이러한 사상을 담은 몇 개의 구절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의 구원관을 볼 수 있다. 다음의 구절들은 『최후의 심판의 예견』에서 뽑은 것이다.

상상력은 정말로 불변하는 것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Imagination is a Representation of what Eternally Exists, Really & Unchangeably.

현대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는다.

The Modern Church Crucifies Christ with the Head Downwards.

시력(또는 직관)에 관한 한, 내 육체의 눈을 문체 삼지도 않으며, 또한 창문을 문체삼지도 않는다. 나는 그것(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일 뿐 그것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 question not my Corporeal or Vegetative Eye any more than I would question a Window concerning a Sight. I look thro' it & not with it.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자제하고 다스리거나, 또는 전혀 열정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오성(悟性)을 계발했기 때문이다.

Men are admitted into Heaven not because they have curbed & govern'd their Passions or have No Passions, but because they have Cultivated their Understandings.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블레이크는 인간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무한하여, 신의 능력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은 분석력과 감각에 너무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인간의 통합적인 능력과 형이상학의 정신적인 세계를 보는 능력이 감퇴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부정(negation)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어 통합과 총체적인 기능이 마비된 조각난(fragmented) 인간이 돼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투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실체(contraries)로 보아 이들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인간은 다시 서로 서로 연결된 The Universal Man의 경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기능을 상상력(Imagination, 또는 Genius)이 하게 되며, 인간의 구원은 곧 상상력의 회복에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인간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Selfhood)가 아니고 커다란 통합체 속에서 서로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의 처지를 아는 공감대(Sympathy)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곧 인류의 구원이며, 또한 사회의 구원이기도 하다.

#### 4) Shelley의 공감적 상상력(Sympathetic Imagination)

셸리는 이 세상에서 불의와 부정, 그리고 압제를 제거하여,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시인이자 사상가였다. 그의 행동과 사상은 그러므로 대단히 엉뚱한데가 있다.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하여 『무신론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Atheism*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입학 후 6개월 후에 퇴학당한 일이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또한 제도화된 결혼을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번이나 결혼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첫번째는 헤리어트 웨스트브루크 Harriet Westbrook와의 결혼이었는데, 이 결혼은 사랑 때문에 한 결혼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이념 때문에 한 결혼이었다(그녀가 셸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사회의 압제적인 측면에 대한 견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는 “감사와 정의의 감정은 나로 하여금 그녀를 영원토록 사랑하지 않

면 안되게 꿈 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셸리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때의 일로 그는 겨우 18세였다.) 두번째의 결혼은 철학자인 윌리엄 고드윈의 딸인 메어리 고드윈과의 것이었다. 이번에는 셸리는 메어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그의 생각으로는 만약 해리어트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와 메어리와의 행복한 결혼을 축복해 주리라 믿었다. 그래서 셸리는 해리어트에게 그와 해리어트와 메어리가 셋이서 같이 살자고 제의했다(물론 해리어트는 셸리의 여동생처럼 살고, 메어리는 그의 부인으로서). 그러나 이러한 셸리의 제의를 해리어트는 반대했다. 그러자 셸리는 메어리와 함께 사랑의 도피행을 떠났다. 결국 이처럼 엉뚱하고 순진한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해리어트가 자살하게 되고 셸리는 난처한 입장에 몰린다. 셸리의 이같은 결혼은 인간은 “독점적”(possessive)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크고 넓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도 어이없이 순진하고 엉뚱한 셸리의 생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세상의 압제적인 요소를 타파함으로써 이러한 그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감에 따라 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오히려 인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변화가 사회변혁의 선행조건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시인이라고 셸리는 믿었다. 시인은 자신이 공감적 상상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는 모든 사람이 공감적 상상력을 갖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공감적 상상력이란 남과 나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의 발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감의 상태에서는 너는 곧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공감적 상상력이 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해방된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Unbound*의 처음 장면이다. 희랍의 극작가 에스쿨러스 Aeschylus는 그의 작품 『속박된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Bound*를 썼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류에게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가 그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제우스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는 코카서스 Caucasus 산에 결박을 당하여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아 먹고 있다. 이처럼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끝까지 제우스의 압제에 항거한다.

한편 셸리의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는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 전개가 다르다. 시작부분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산에 결박당하여 있다. 그 결과 땅과 하늘에도 고통과 참담의 기색이 깃들게 된다. 그러자 프로메테우스는 이 모든 참담의 원인은 자신이 주피터에게 품고 있는 저주에 있음을 알고 저주를 풀어 없앤다.

나는 그대를 축운하게 여기노라.

.....

나는 기쁨에서가 아니라 슬픔 속에서 말한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이제 고생은 나를 현명하게 해주었다.

이제 내가 그대〔Jupiter〕에게 품었던 저주를

기억하여, 취소하는 바이다.

I pity thee.

.....

I speak in grief,

Not exultation, for I hate no more,

As then, ere misery made me wise.—The

Curse once breathed on thee I would recall.

*Prometheus Unbound,*

1막 53-60줄

이와 같은 셸리의 공감적 상상력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한 곳이 그의 『시의 할 변 호』 *A Defence of Poetry*라는 논문이다. 그는 이 논문의 시작부분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그 하나가 분석적인 지성 reason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합성적인 상상력 imagination이다. 시인은 합성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인 poet이란 말을 희랍어에서는 만든다 To poiein이라는 말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합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인은 예언자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입법자들” the unacknowledged legislators of the world이기도 하다. 시인들은 “영원한 것, 무한한 것, 그리고 유일한 것” in the eternal, the infinite, and the one 속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재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현재 속에서 본다” not only beholds intensely the present as it is...but...beholds the future in the present. 그러므로 이러한 시인이 쓴 시는 단지 예술 작품으로서 머물뿐 아니라, “베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베일을 벗겨 보여 준다” poetry lifts the veil from the hidden beauty of the world. 그러므로 모든 숭고한 시는 그 능력에 있어 무한하다 high poetry is infinite. 결국 시는 신의 속성을 가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중심이며 동시에 가장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시는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속성과 신의 속성의 만남” the interpenetration of a diviner nature through our own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속성을 가진 시의 본질은 무엇일까? 셸리는 시의 본질의 기초는 공감적 상상력에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덕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근간은 사랑이다. 이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생각, 행동 또는 타인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과 동질화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인간이 아주 선량해지려면 강렬한 상상력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만 한다. 그는 다른 사람 또는 많은 타인의 위치에 자신을 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온 인류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기쁨이 온통 자신의 것이 돼야 한다.

The great secret of morals is love; or a going out of our own nature, and an identification of ourselves with the beautiful which exists in thought, action, or person, not our own. A man, to

be greatly good, must imagine intensely and comprehensively, he must put himself in the place of another and of many others; the pains and pleasures of his species must become his own.

*A Defence of Poetry*

5) Keats의 “Negative Capability”

낭만시인 중에서 가장 짧은 생애를 살다간 시인이지만, 가장 위대한 시적 업적을 남긴 사람은 키이트이다. 그는 1821년 2월 23일 폐결핵을 요양하기 위하여 왔던 로마에서 만 25세 4개월이라는 짧은 생애를 마쳤다. 그러나 그가 남긴 문학적 업적은 셰익스피어의 업적에 자주 견주어 지기도 한다.<sup>9)</sup>

사실 키이트는 셰익스피어를 자신의 시의 모범으로 삼았다. 그의 방에는 셰익스피어의 세 초상화가 걸려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시적 정진을 계속했다. 키이트는 만 26세도 채 못되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생애는 오직 시만을 위해 살다간 일생이었다. 사실상 영문학사상에 있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불후의 시들을 남긴 사람은 셰익스피어를 포함하여 일찌기 없었다. 그처럼 그는 천재적인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시인이었다. 그는 오직 시를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 대한 열망과 야망이 컸기 때문에, 자신의 시에 대한 후세의 평가가 어떨지에 대한 불안도 컸다. 그의 이러한 불안은 그의 묘비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여기 물 위에 이름을 쓰고간 사람이 누워있다” Here lies one whose name was writ in water라고 비명에 쓰고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어떤 시인이나 소설가가 자신의 모범으로 삼는 선배 문인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 사람의 문학적인 경향을 알 수 있다. 키이트는 셰익스피어의 어떤 면에 매력을 느낀 것일까? 이 물음을 답하기 전에 우선 키이트의 성격을 보기로 한다. 그는 아주 사심이나 고집이 없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들면 그것을 자기 주장으로 금방 굳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반대되는 측면도 생각해 본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함에 있어 반대되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항상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생각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자기 마음 속에서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둔다. 이처럼 어떤 생각에 대하여 판단을 보류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생각들은 서로 서로 혼합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키이트는 자기와는 전혀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한 남의 처지가 돼 보기도 한다. 셸리가 공감적 상상력을 주장했다면, 키이트는 이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다.

키이트의 눈에는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이러한 성격을 창작원리로 삼아 작품을 쓴 사람이었다. 그는 셰익스피어를 “Camelion Poet”<sup>10)</sup>이라고 부른다. 즉, 셰익스피어는 고집을 부리

9) David Perkins, p.1113.

10) Hyder E. Rollins, ed., *The Letters of John Keats: 1814~1821*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58), Vol. I. 387.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footnote를 달지 않고 본문에 출처를 명기하겠음. 이 경우 *Letters*라고 쓴 후 I, II로 volume 번호를 표기하겠음.

지 않고 그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른 사람의 처지로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것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무수한 작중 인물을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인이란 자신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살아 있는 어느 것보다도 가장 시적이 아니다.

A Poet is the most unpoetic of anything in existence because he has no Identity. (*Letters*, I. 387).

이처럼 셰익스피어처럼 자신의 고집이나 편견이 없이 마음을 비워서 어느 누구의 의견이나 성격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Negative Capability”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 시인(또는 작가)은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갖고 마음껏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에,

인간은 어떤 사실이나 논리적 체계를 애써 찾으려 하지 않고, 불완전하면 불완전한대로, 미심쩍으면 미심쩍은대로, 의심이 나면 의심이 나는대로 그저 그대로 있을 수 있게 된다.

man is capable of being in uncertainties, Mysteries, doubts, without any irritable reaching after fact & reason (*Letters*, I. 193)

이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키이츠는 자신의 시의 형식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갔으며 언제나 새롭게 보다 나은 시의 양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 6) “Byronic Hero”와 Romantic Irony

바이런의 시는 형식에 있어 낭만시의 전통을 따르기 보다는 오히려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의 시의 형식을 따랐다. 이처럼 단순히 그의 시의 업적만을 놓고 볼 때 그는 낭만시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낭만시를 말할 때 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는 19세기 초의 유럽을 풍미하던 세기의 풍운아였으며, 후에 불란서 낭만주의에 빼어 놓을 수 없는 영향을 미친 당대의 위대한 시인이었다. 그가 1812년 “Childe Harold의 순례” 1편과 2편(Canto I and II)을 발표하자, 그의 명성은 유럽을 뒤흔들었다. “나는 깨어보니 하루 밤 사이에 유명해졌다” I awoke one morning and found myself famous라고 바이런 자신은 말하고 있다. 그에 대한 일화는 오히려 그의 시보다도 더욱 유명하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으며, 그의 집안에는 무모한 조상이 많았다. 예를 들면, 바이런의 할아버지는 해군제독이었는데,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날씨가 사나워진다고 하여, “악천후의 잭” Foulweather Jack이라는 별명을 들었다. 또한 바이런의 증조부도 성질이 나빠 “심술궂은 귀족” Wicked Lord이라는 별명을 들었다(그는 술에 취하여 결투하던 중 친척을 죽여서 재판에 붙여졌다). 또한 그의 아버지도 바람꾼이었고, 또 한량이었다. 바이런 자신은 날 때부터 약간 다리를 절었고, 비만해지는 체질이어서 어떤 때는 비스케트와 물만 먹고 며칠을 단식한 적도 있었다. 또한 여자의 편력이 심했으며, 이복 여동생인 오거스타 레이 Augusta Leigh와의 근친 상간 소문 때문에 영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태리로 도망가서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거기서 그는 비슷한 처지의 셸리와 만나 친교를 맺었다.



그는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리스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가 미솔롱기 Missolonghi라는 늪지대에 있는 도시에서 서른 여섯번째의 생일을 지낸 뒤 얼마 있다가 열병에 걸려 죽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독립의 영웅으로 숭앙되고 있다. 이러한 한 시대의 풍운아인 바이런은 사실은 비관론적인 인생관을 가졌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세살 때 죽었으며, 그는 어머니의 엄한 칼빈적인 교육을 받고 궁핍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다(증조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그가 10세 되던 해였다). 이러한 그의 인생관은 그의 시에서는 풍자(Satire)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의 문학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것들 중에 소위 “바이런적 주인공” Byronic Hero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독특한 개성의 주인공과, 또한 그의 작품의(특히 그의 후기 작품인 『돈 주안』 *Don Juan*) 기조를 이루는 낭만적 아이러니 Romantic Irony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Byronic Hero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Byronic Hero는 가끔은 Satanic Hero라고 불리우기도 한다).<sup>11)</sup> 이러한 주인공은 그의 『차일드 해롤드의 순례』 『회교도 해적선』 *The Corsair*, 『라라』 *Lara*, 『맨프레드』 *Manfred*, 『카인』 *Cain* 등의 작품에 나타난다. 이러한 바이런적인 주인공은 19세기의 문학과 철학에 흥미하던 인물의 한 유형이다. 이러한 인물을 18세기의 고딕 소설, 샤토브리앙(Chateaubriand)의 소설에 나오는 René, 밀톤의 『실낙원』에 나오는 악마, 그리고 나폴레옹 같은 인물들이 복합하여 그 특징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런적인 주인공은 에밀리 브론테 Emily Brontë의 소설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에 나오는 히쓰클리프 Heath Cliff, 또는 허먼 멜빌 Herman Melville의 작품 『백경』 *Moby Dick*에 나오는 에이해브 선장(Captain Ahab) 등으로 이어진다.

바이런적인 주인공은 우선 사회의 기존 질서와 사회의 통념에 반항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타파하려는 인물이라는 점이 그 첫째 특색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그는 혁명적이고, 저돌적이고,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특색을 지닌 인물을 우리는 『맨프레드』와 『카인』에서 볼 수 있다. Manfred는 근친상간의 죄책감(이는 바이런 자신의 자전적인 요소의 암시이기도 하며, 바이런은 그의 이복 여동생 오거스타 레이와 근친상간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을 가지고 알프스의 깊은 산 속에서 자살을 기도한다(물론 이 경우 작품에는 근친 상간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없다). 그는 땅과 하늘, 산 등의 여러 신령을 불러, 자신에게 망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나, 이들은 맨프레드의 이러한 청이 그들의 능력 넘어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한다. 이들은 단지 신의 권한을 일부 나눠 가진 것 뿐이고, 맨프레드가 자신의 말 못 하는 죄를 잊기 위해서는 신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악마적이고 권위 타파적인 맨프레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도원장도 이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맨프레드에게 참회하여 신과의 화해하기를 권유

11) David Perkins, p. 782와 N.A. II, p. 506을 볼것.